

小農問題와 協同的 營農의 可能性

吳 浩 成

首席研究員, Ph. D.(資源經濟學), 資源經濟研究室

- I. 序 論
- II. 小農構造와 農業所得
- III. 兼業深化와 農業發展
- IV. 協同的 營農의 種類
- V. 日本과 臺灣의 經驗
- VI. 協同的 營農의 成功條件
- VII. 結 論

I. 序 論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經濟가 高度成長을 계속하는 동안 農村內部에 많은 變化가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變化는 農家戶數와 農村勞動力의 減少이다. 農家戶數는 1967年을 分岐點으로 매년 감소하여 1978년까지 14%가 줄어들었다.

農家人口는 農家戶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 같은 기간에 28%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農家戶數와 農家人口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戶當平均 耕地面積은 0.9ha에서 0.99ha로 停滯狀態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原因은 工業化와 都市化 등으로 매년 많은 面積의 農耕地가 他目的으로 轉用되는 것과 農業人口는 빨리 줄어들으나 農家戶數의 감소속도가 늦은 데 있다.

土地에 대한 農民의 뿌리깊은 愛着, 家族全體가 이농했을 때의 就業의 곤란, 이웃과 生活곤

거의 喪失, 인플레이 아래서 資產價値 保存 수단으로서의 農地의 價値 증대 등은 農地를 팔고 全家族이 떠나는 것보다 老人과 婦女子들로 하여금 營農을 계속케 하고 靑壯年만 離農토록 하는 現象의 큰 要因이 되고 있다.

農業人口가 줄어들면서, 戶當平均 耕地面積은 별로 늘지 않았어도, 營農從事者 1人當 耕地面積은 1962年の 2.7段步에서 1978年の 3.8段步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現象은 小農과 大農 사이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¹

農村의 農業人口 감소와 營農從事者 1人當 耕作面積의 증가는 農村勞賃의 급격한 上昇을 초래하여 農村賃金指數가 1966年 기준 1978년에 11.5倍로 急上昇하였다.²

經濟發展에 따른 農村勞動力의 감소는 남아 있는 農家の 經營規模擴大와 機械化로의 신속한 調整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만 빠져 나가고 농업경영은 옛날과 大同小異한 데 우리나라 農業의 苦悶이 있다. 小農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 「協農的 營農을 통한 大規模 經營의 有利性 추구」는 과거에도 여러 번 論議가 있었고 부분적인 示圖도 있었으나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經濟與件이 많이 변한 오늘날 協同的 營農

의 可能性을 다시 檢討해 볼 시점에 와 있다.

Ⅱ. 小農構造와 農業所得

전반적인 經濟構造의 再編 속에서도 그대로 存續하고 있는 小農構造의 持續化와 規模의 小農平準化 現象은 장기적으로 볼 때 農業發展에 심각한 문제거리로 指摘되고 있다. 農業人口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戶當平均 耕地面積이 1ha 미만인 사실은 戶當 農業所得 伸張의 限界性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非農業分野 중사자와의 所得隔差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급격한 勞賃上昇이 生産費의 上昇과 더불어 農家經濟를 壓迫하고 있다. 이에 따라 農業機械化의 必要性이 점점증하나 小農 體制 아래서는 效率의인 기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도 경제발전 에 따른 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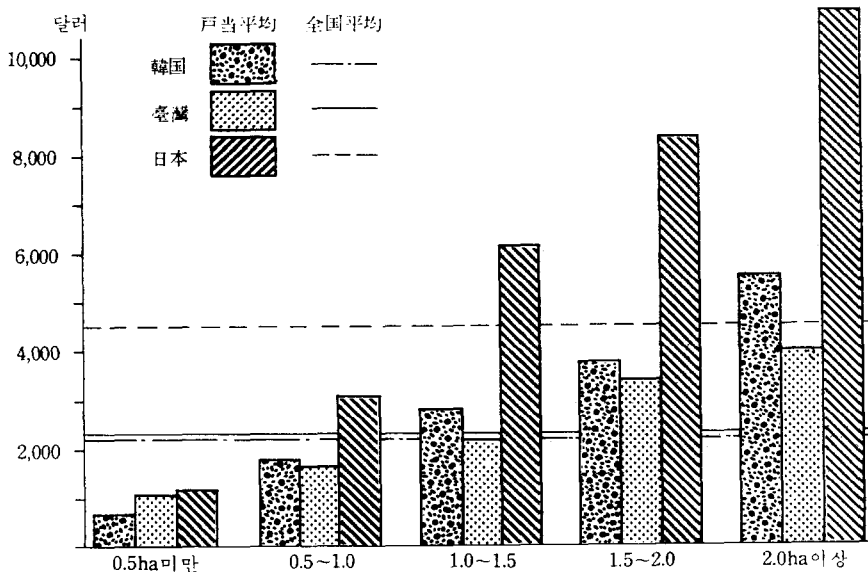
業人口의 감소가 남아 있는 農家의 經營擴大와 機械化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小農을 중심으로 한 兼業化, 過剩機械化가 나타났던 점을 考慮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農家所得은 耕地規模別로 볼 때 큰 차이가 있다. 0.5ha 미만 零細農의 年間平均 農家所得은 2.0ha 이상인 大農의 $\frac{1}{3}$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日本과 臺灣의 경우는 階層別 所得 차이가 거의 없다.

所得隔差가 없는 이유는 農業經營規模가 작아 질수록 農外所得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業所得만 보면 우리나라, 日本, 臺灣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한 階層別 所得隔差를 나타내고 있다. 세 나라의 1977年度 耕地規模別 農家所得과 農業所得을 달러로 換算해 보면 <圖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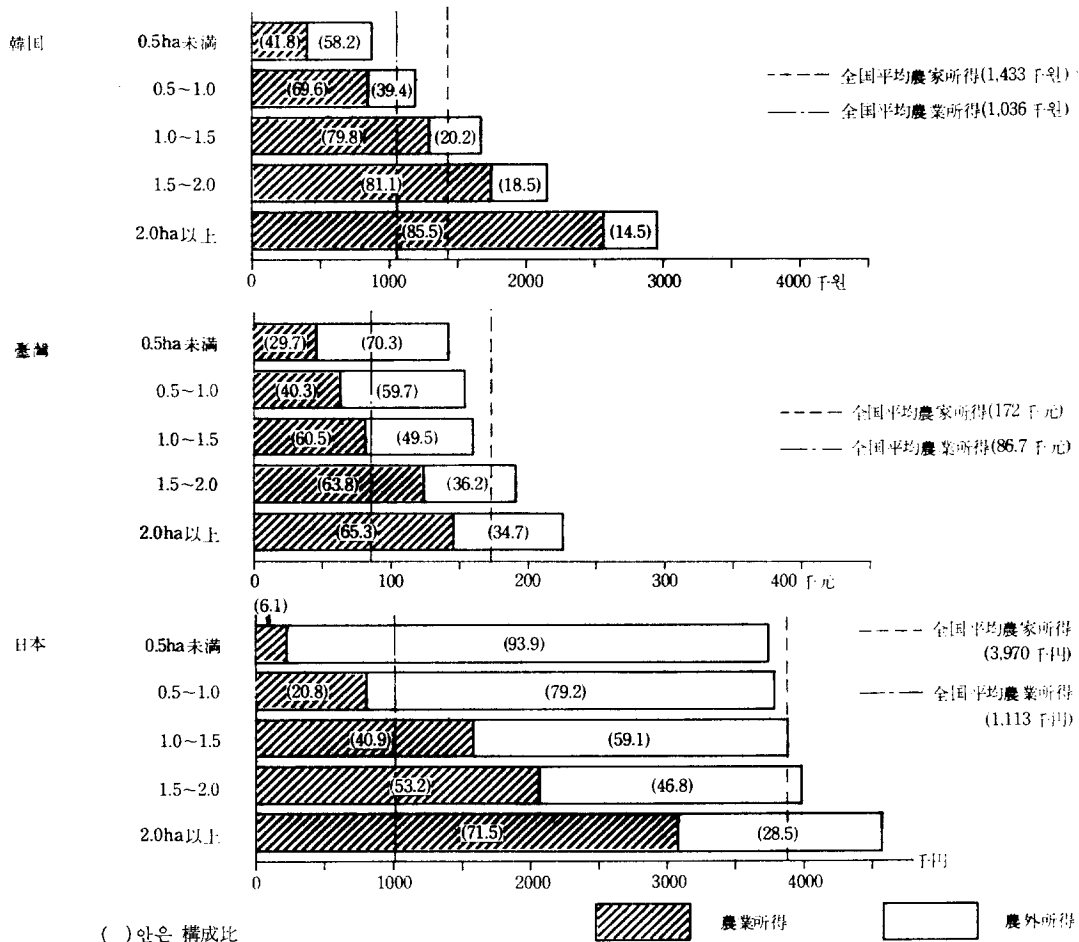
平均耕地面積 0.5ha 미만의 零細農은 韓國, 日本, 臺灣 세 나라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圖 1. 韓國, 臺灣, 日本의 耕地規模別 全國平均 및 年平均 戶當 農業所得, 1977



換率: 韓國/1달러=484원(1977), 臺灣/1달러=38.05元(1977), 日本/1달러=257.7圓(1977).
 資料: 吳浩成, 金正夫, 「經濟發展과 農地制度」, 연구중간보고 7,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8, p. 49.

圖 2. 韓國, 臺灣, 日本의 耕地規模別 戶當平均 農家所得 構成比較, 1977



()안은 構成比
 資料: 韓國/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78.
 臺灣/臺灣省政府農林廳編印, 「臺灣農家記帳報告」, 1978.
 日本/農林省統計情報部, 「昭和52年度農家經濟調查報告」, 1979.
 吳浩成, 金正夫, 前掲書, p. 56.

年平均 戶當 1,000달러 안밖이다. 그러나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日本의 農業所得은 韓國이나 臺灣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農業技術과 經濟가 발전할수록 大農의 農業所得은 伸張될 수 있으나, 零細農의 農業所得 伸張은 스스로 限界가 있음을 의미한다(圖 2).

日本과 臺灣도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農村人口는 급격히 減少하고 있으나, 戶當平均 經營規模의 零細性과 小農構造는 持續되고 있다. 日本

의 경우 1ha 미만 농가가 1950년에는 全體農家數의 72%이었는데, 1977年에도 70.7%를 차지하여 비약적인 經濟發展에도 불구하고 小農體制가 유지되고 있다.³ 臺灣도 1965年에 1ha 미만의 農家構成比가 全體農家數의 66.7%였는데, 1975年에는 71.3%로 오히려 增加함으로써 工業化에 따라 離農人口가 늘어나더라도 農業構造는 自動으로 改善되지 않음을 立證하고 있다.⁴

그러나 日本과 臺灣은 零細農의 所得問題를 農

外所得의 增大로서 解決했다. 工場의 農村分散으로 就業機會가 많아지자 零細農을 중심으로 한 工場就業이 빠르게 증가하여, 여기서 얻는 所得이 農業所得을 능가하고 있다. 經營規模가 작을수록 農外所得에 힘써 전체적인 農家所得은 農業經營規模에 큰 관계없이 대체로 平準化되고 있다.

Ⅲ. 兼業深化와 農業發展

그러나 農外所得比重的 增大는 자연히 農業의 兼業化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農業生産의 硬直, 單純化와 農產物生産費의 上昇을 가져와 農業近代化와 生産性向上에 커다란 障害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은 1950년에 兼業農家 比率이 總農家の 50%였으나, 1975년에는 87.6%로 늘었고, 非農業所得이 農業所得보다 큰 第2種 兼業農家が 總農家數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1ha미만의 小農들이다. 이 중에서도 農家數의 약 40%를 차지하는 0.5ha 미만 농가의 農外所得比率이 81%이며, 農外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率은 121%에 달하여 兼業所得만으로도 家計費를 충분히 카버하는 狀態에 있다.⁵

따라서 이들 第2種 兼業農家の 農業意慾과 生産性은 專業農家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즉 이들 농가의 土地生産性은 專業農家の 61%, 資本生産性도 61%에 불과하다.⁶ 이들 第2種 兼業農家の 生産性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農外就業 등으로 인한 勞動力 不足으로 農業經營과 農外就業이 兩立할 수 있는 作目的 선택, 즉 水稻作으로 單一化하는 경향이 강하고, 耕地利用率을 높이기 위한 復合化는 피하고 있으며, 生産裝備 면에서는 農外所得의 일부를 투입하여

過剩機械化로 單位當 固定資本裝備率이 높은 점이다.

臺灣도 1977년 현재 兼業農 比率이 83% 가량 되어 日本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農業의 兼業深化는 兼業을 하는 農家主體의 문제라기보다는 國民經濟的 立場에서의 문제점이 크다. 農業意慾과 生産性이 적은 多數의 兼業農家が 農地의 所有를 고집할 때, 農業經營規模의 擴大와 自立專業農의 育成이 어려워진다. 또한 零細農構造가 定着 持續됨으로써 農業의 效率性이 낮아져 國民經濟各部門間的 均衡있는 發展이 저해된다.

이에 대한 農家の 長期的 解決策으로는 效率性이 낮은 農家の 轉業推進과 함께 單位農家の 經營規模를 擴大시켜 自立專業 農家を 育成하는 農業構造改善事業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農業과 經濟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制約點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零細農과 兼業農의 協同化를 통해 勞動力不足 문제와 함께 生産性底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나라처럼 零細農의 수가 압도적이고, 土地所有에 대한 愛着이 뿌리깊은데다가, 단시일내에 모든 零細農이 轉職하거나 經營規模擴大가 어려운 경우 協同的 營農을 통해 農業生産을 組織化함으로써 小規模經營의 不利性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農村의 人力不足이 深化되고 農外就業의 기회가 늘어난 近來에 기계의 共同利用을 중심으로 한 協同經營의 成功을 위한 必要條件은 일단 成熟하였다고 판단된다.

Ⅳ. 協同的 營農의 種類

農業의 協同化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도 다양한 形態를 가지고 오래 전부터 있었다. 아시아의 畝作農業을 위주로 하는 지대에서는 灌溉를 중심으로 勞動力의 交換 또는 共同利用이 여러 가지 形態로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共同灌溉, 품앗이, 두레 같은 것이 勞動力의 共同利用이었고 近年에는 개인이 耕耘機, 탈곡기 같은 小型機械를 가지고 請負作業을 해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産業社會로 移行하는 과정에 自生的으로 나타나는 協同的 營農은 時限營農을 위한 단순한 勞動力의 交換과는 다르다. 産業社會의 協同營農은 構造的으로 不足한 勞動力을 기계화를 통해 解決하고 동시에 節減되는 勞動力을 機會費用이 높은 곳으로 돌려 專門化함으로써 綜合的인 所得增大를 꾀하는 데 있다.

協同的 營農은 形式과 形態가 多樣하며 많은 부분이 重復될 수도 있는 것이 特色이다. 따라서 協同的 營農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協同的 營農의 形態를 굳이 區分하고자 할 때는 協同의 정도에 따라 部分協同과 全面協同經營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部分協同은 水稻作, 비닐채소, 養豚 등과 같은 個別經營의 일부분이나 또는 어느 部分全部를 共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經營의 主體는 어디까지나 個別農家이며 協同農業의 成果나 損失도 개인이 共同運營에 참가한 부분만큼만 진다. 機械의 共同利用이나 農作業의 委託도 部分協同에 들어간다.

全面協同은 個別農家の 全營農部分을 統合하여 하나 하나의 意思決定機關에 의해 綜合運營되는 狀態를 말한다. 協同經營體는 法人이 될 수도 있고, 任意團體도 될 수 있다.

全面協同經營體가 構成員이 아닌 農民들과 어떤 특정작업에 共同으로 종사할 수도 있고, 다

른 農民의 農作業을 委託받아 代行할 수도 있으며, 또 이와 反對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日本에서는 協同農業을 生産協同組織과 組合經營組織으로 크게 나누며, 이를 다시 여러 가지 種類로 細分하고 있다. 이 分類도 정확한 것은 아니나 日本 農林水産省에서 쓰고 있는 方法이다.⁷

1) 農民의 生産組織 (Production Organization)

- 集團栽培 (Joint Operation of Farming Practices)
- 機械共同利用조직 (Joint Use of Farm Machinery and Facilities)
- 구름營農 (Group Farming)
- 請負營農 (Contract Farming)

2) 組合經營組織 (Cooperative Management)

- 單一部門組合經營 (Cooperative Management of a Single Enterprise)
- 全部門組合經營 (Cooperative Management of All Enterprises)

生産組織은 두 家口 이상의 農家가 協同하여 農業生産活動에 한하여 一部 또는 全部를 共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組合經營組織은 生産뿐 아니라 原料의 구입, 生産物의 판매를 統合하여 共同으로 하고 利益을 출자한 土地 또는 자본의 기여도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集團재배는 手勞動의 相互交換으로 공동모내기, 벼베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共同利用組織은 大型機械와 裝備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形態로, 트랙터, 콤팩트, 곡물 건조기 등이 이용의 대상이 되나, 반드시 機械 등을 共同으로 所有할 필요는 없다.

구름營農은 참가 農民들이 協定에 의하여 구역 내에서 品種의 선택, 施肥, 관개, 防除 등을

統一의으로 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룹營農은 다시 技術的 協約만 하는 경우, 技術的 協約과 勞動力의 相互交換을 합친 것과, 그리고 技術的 協約에 機械의 共同利用을 합친 것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請負營農은 委託營農인데 個別農家 農作業의 一部 또는 全部를 다른 農家나 團體에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委託하는 形態를 가르킨다.

V. 日本과 臺灣의 經驗

日本에서도 手勞動의 交換을 중심으로 協同的 營農의 歷史는 오래된다. 그러나 經濟構造가 바뀌면서 大經營의 有利性과 이농으로 인한 勞動力不足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近代的의 義의 協同的 營農은 1957년경부터 胎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60年代에 들어와서 農地法의 改正과 함께 農業構造 改善事業이 중요한 農業政策으로 대두되자 耕地基盤의 造成과 함께 水稻作의 集團栽培로 시작되었다. 開拓農場에서 보는 組合經營組織이 아닌 一般地域에서의 農事組合經營은 1958년에 처음 창설되었다. 그 후 農業構造改善事業의 일환으로 政府의 적극적인 支援에 힘입어 組合 형태의 조직은 1966년에 약 6,000개로 최고에 달했으나 그 후부터 점차 감소하여 1975년에는 약 4,000으로 줄었다.⁸ 그 중에서도 전부문 농사조합 경영은 260여개에 불과하다. 持續的인 經濟成長으로 農村의 兼業化가 더욱 심해져 農事組合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바람직하게 되고 있으나, 農民들의 異質性으로 인한 利害相衝과 不安感, 專門經營人과 機械 操作員에 대한 勞動力 評價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더 發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60年代 後半과 1970年代 初半에 移秧機, 콤팩트 등의 기계가 많이 보

급되자 水稻作을 중심으로 한 기계공동이용, 그룹營農과 請負耕作의 方向으로 協同農業組織이 再編되고 있다.

1977年 日本의 統計에 따르면 水稻作農家の 62%를 접하는 250萬戶의 農家が 農作業의 일부를 外部와 協同내지 委託한 것으로 나타났다.

農作業의 種類別 委託農家數 比率를 보면 乾燥搗精이 40%로 제일 많고, 防除 24%, 刈取 및 탈곡 22%, 起耕 19%, 移秧 15%, 育苗 14%로 되어 있다.

防除作業을 제외한 農作業의 委託先은 個人農家が 압도적이고, 다음은 農協, 協同的 生産組織, 個人請負業者의 순이다.⁹

이처럼 協同的 經營의 가장 흔한 형태는 共同利用組織과 受託組織을 통해 育苗, 搗精 등은 共同利用組織에 맡기고, 起耕, 整地, 移秧 및 收穫 등은 委託 또는 請負作業에 맡기는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

部落民이 모두 참가하는 組合經營 形態에서 委託型 그룹營農으로 바뀐 勝田農事組合을 예로 들어 協同經營의 문제점과 발전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勝田農事組合은 1963年 트랙터 3臺를 가지고 全部落 水稻農家 71戶가 80ha를 가지고 農事組合을 결성하였다. 당시는 一貫機械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앙, 수확 등을 手勞動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모든 農家が 이앙기 등에 出役 의무를 갖게 되어 兼業農家の 增加와 함께 勞動出役이 不均等하였다. 동시에 土地에 대한 出資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運營되었으므로, 도중탈락 등으로 經營規模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土地에 대한 配當은 높았으나, 經營管理者와 機械運轉者의 報酬를 一般出役農民의 賃金과 같게 함으로

서 큰 不滿이 생겨 1968年 組合을 解體하였다.

그러나 兼業農家の 증가로 勞動力이 크게 모자란 狀態에서 다시 個別經營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따라서 農民들은 종래 조직의 短點을 제거한 農事組合을 구성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條件을 수락할 수 있는 農家만 받아들였다.

1) 農事組合에 土地委託을 서류로 해두고 契約地代를 확정한다.

2) 利益配分에는 地代差引前의 利益에서 契約地代分을 差引하고, 그 나머지를 土地配當 $\frac{1}{3}$, 出役勞働에 대한 割増金 $\frac{1}{3}$, 管理役員과 機械 運轉者 手當 割増金 $\frac{1}{3}$ 의 비율로 분배한다.

3) 役員은 Full time이며 機械 運轉管理를 함께 담당한다.

4) 농번기에 노동조달이 곤란한 경우 委託面積에 따라 出役을 의무화한다.

이상과 같은 條件을 71戶 중 39 戶가 받아들여 40ha를 가지고 運營하였다. 加入農家は 兼業農이 대부분이고, 專業大農 중에 몇 농가가 참여 經營管理와 기계조작을 맡았다. 1969년부터 移秧機와 콤파인이 導入되어 전작업을 기계화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농번기 出役義務가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다. 이 組合은 농기계 조작에 익숙한 4人的 常勤役員과 2人的 非常勤役員 그리고 10名 안팎의 老人과 婦人으로 구성된 임시 노동자만의 힘으로 40ha의 水稻作 농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勝田組合은 이처럼 初期의 全部落組合經營의 단계에서 수 명의 專門役員과 기계에 의한 一貫作業이 實現됨으로써, 農事組合은 請負의 性格이 강한 組織으로 변하여 잘 運營되고 있다. 이 組合은 2毛作까지 協同 범위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

組合의 運營結果를 평가해 보면 전체적인 면

에서 土地生産性은 약간 늘어났으나, 勞働生産性은 크게 늘어났다. 組織에 참여한 個別農家は 地代, 土地配當, 노동보수 등을 합쳐 같은 규모 的 專業農에 비해 水稻作 收入은 약간 낮으나 勞動力不足에서 오는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고, 남는 시간을 兼業에 종사하거나 養鷄 등 他部門에 돌림으로써 農家の 綜合所得은 增加하였다.

臺灣에서도 1960年代 後半부터 JCRR의 指導 아래 協同的 營農經織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처음에 12~15ha의 논을 한 單位로 그 논을 所有하고 있는 20~30戶의 農家가 協定에 따라 같은 品種을 재배하고 共同作業을 하는 集團栽培形態의 營農이었다. 그러나 1972年경부터 移秧機, 탈곡기 같은 大型機械의 利用이 가능해지면서 기계의 共同利用을 추가한 그룹營農 形態로 轉換되고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臺灣의 그룹營農은 이제 初期段階에 있으므로 그 成敗와 結果를 단정적으로 評價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記錄으로 보면 機械의 效率的 利用과 作業班의 管理技術의 向上으로 單位當 收量이 10~24% 增加하였다. 또 生産費도 10~15%를 절감시켜 他地域에 비해 ha當 利益을 20~45% 向上시킬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¹¹

臺灣의 그룹營農은 土地의 所有權을 農民이 그대로 가지면서 자기의 農地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모두 本人에 歸屬되고, 잘 짜여져 있는 作業計劃과 營農方法에 따라 效率的으로 機械를 共同利用하는데 특색이 있다. 또 勞賃과 농약 등 生産資材를 구입하기 위하여 協同經營體가 銀行으로부터 融資를 받아 機械利用料와 出役勞賃을 즉시 支拂하되 農民은 추수 후에 費用을 지불한다.

機械의 所有者는 그룹 구성원의 土地에 서비

스를 해 주고 비용을 받아 가되 과거의 請負作業처럼 이 논에서 저 논으로 불규칙하게 옮겨 다니느라고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지 않고, 한 團地 안의 農地를 잘 짜여진 순서에 따라 作業하므로 더 많은 面積을 더 싼 비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勞動力이 不足한 兼業農은 出役하지 않고 傭農 팀에 農事를 맡기므로 副業이나 工場에서 더 많은 所得을 올리기도 한다. 調査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運營되고 있는 傭農組織의 組織員 數의 86%가 60% 이상의 소득을 농업 이외에서 얻는 第2種 兼業農으로 나타나 絶約된 勞動力의 他部門 利用可能性 여부가 傭農의 成敗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要素가 되고 있다.¹²

VI. 協同의 營農의 成功條件

우리나라에서도 農村勞動力不足 문제가 심화되자 農民들에 의해 協同의 營農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營農作業團과 農事組合 같은 것이 79年~80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79년에는 全北營農代行會社가 農民들에 의해 조직되어 完州를 중심으로 80ha의 作業受託을 받아 1年 동안 運營한 經驗이 있다.

80年初에는 慶尙南道 晉陽, 蔚州, 金海, 昌原, 昌寧 등지에서 30ha 내외의 農事組合 5個가 設立되었다. 또 全羅南道에서도 管内 23個 市郡에 1個씩 靑少年 גיע영농단을 設立하여 금년부터 營農作業을 代行키로 하고 준비중이다. 全北과 全南에서 실시하는 協同營農은 請負組織이고, 慶南의 것은 組合經營組織의 性格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示圖되고 있는 協同의 營農은 워낙 經驗이 없기 때문에 어떤 方向으로 어떤 試行着誤를 거쳐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

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經濟成長의 사다리를 올라간 日本과 臺灣에서의 經驗을 보아 몇 가지의 문제점 先決이 協同營農의 成敗를 가름하는 要因이 될 것으로 보인다.

協同의 經營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外部條件이 성숙되고 內部 문제가 解決되지 않으면 안된다.

1. 外部條件

가. 勞動力不足

該當地域의 勞動力不足이 보통의 方法으로 農事를 짓기 어려운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農村勞動力이 부족한 工團이나 都市부근에 協同營農이 먼저 定着할 것으로 보인다.

나. 農地基盤造成

機械化協同營農이 가능하게끔 水利施設, 排水, 耕地整理, 農道 등의 農地基盤이 조성되어야 한다. 農地의 基盤造成이 없는 곳에서의 機械化는 오히려 費用을 增加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 農外就業 또는 副業의 可能性

協同의 營農을 함으로써 節約되는 農家의 勞動力을 吸收, 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는 農外就業機會가 있거나, 축산, 양잠, 채소 등 다른 農業部門에 여유노동력을 투하, 成功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어 있어야 한다.

라. 營農團體의 制度的 認定과 育成

現行 農地制度는 營農團이나 農事組合 같은 協同營農을 制度的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協同營農의 태동을 저지하지 않고 있으며, 行政적으로는 支援하고 있는 모순된 상태에 있다.

현실적인 必要性에 의해서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고 있는 營農團體를 制度的으로 인정해 주고 이를 育成해 줄 수 있는 法的인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 또 作業受委託에 따른 위탁경영 금지문제, 농사조합의 토지소유 인정 등 農地制度가 改善되어야 한다.

마. 金融支援과 稅制惠澤

資金의 여력이 없는 零細農들이 여러 가지 값비싼 기계를 한꺼번에 購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農藥, 肥料, 油類, 수리비, 機械操作員의 급료 등을 그때 그때 所屬農民들로부터 거두어 준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다 거둘 수도 없다. 따라서 營農에 필요한 資金을 사전에 融資받아 이것으로 營農費를 해결하고, 추후 후에 決算할 수 있는 金融支援이 필요하다.

營農團體에 대한 減免稅 規定이 없이 一般商法上의 단체로 취급하면 이익잉여금 積立, 退職金 적립 등의 복잡한 절차와 費用 및 規定 때문에 協同營農團體의 存立이 어렵다. 따라서 農地法을 制定할 때 세계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根據를 두어야 한다.

2. 內部問題

가. 指導者의 訓練

協同的 營農團體의 組織과 成功的인 運營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指導者의 指導能力과 資質이 중요하다. 指導者는 所屬農民의 전폭적인 信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組織을 管理 運營할 수 있는 經營的 能力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새마을 指導者 訓練 등을 통해 농민의 지도능력은 함양되었으나, 단체의 經營能力을 갖춘 자는 많지 않다. 經營管理能力 함양을 위한 訓練과 外國의 성공적인 농사단체에 대한 見學이 필요하다.

나. 農民相互間的 信賴

協同經營에 참가하는 農民들이 농민 상호간과 指導者 및 이 事業의 成功 可能性에 대한 信賴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參加 農民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문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 圃장 재배기술의 利點과 技術의 收容方法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農村指導員은 이런 점들을 차트와 슬라이드를 통해 농민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다. 經營規模의 계속성

保有하고 있는 農機械, 裝備를 效率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經營面積이 保障되어야 한다. 事業着手 후 脫退하는 農家가 많아 기계장비의 作業能力에 큰 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 機械장비를 效率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經營規模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라. 機種結合의 合理性

機械의 種類와 그 性能結合이 合理的으로 되어 최소한의 運轉員이 一貫作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기계는 性能이 너무 크고 어떤 기계는 性能이 경영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등 破行的인 結合이 있어서는 費用節減이 어렵다.

마. 機械操作의 숙달과 作業計劃의 合理性

機械操作人은 기계의 運轉에 숙달되어 있어야 하고 作業은 機械의 불필요한 移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신속히 수리할 수 있는 體制가 되어 있어야 한다. 時限營農을 하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금방 修繕하지 못하거나 기계조작의 미숙, 불필요한 移動 거리가 많을 때는 費用節減이 어렵다. 또 管理費用의 節減을 위하여 組織의 役員이 機械操作員을 兼任해야 효과적이다. 役員의 수는 最少化해야 한다.

바. 合理的인 勞動力 評價와 利益金 分配

出役하는 農民들은 그들이 일한 量에 따라 公平하게 보수를 받아야 한다. 男子와 女子, 나이에 따른 勞動能力 등에 따라 노동의 보수가 달

라져야 한다. 또 移秧, 病虫害 防除, 수확 등의 作業은 施肥, 물管理, 除草 등 作業보다 어려우므로 作業의 種類에 따라 勞賃의 기준이 달라야 불평이 없다. 또 利益金 分配도 管理役員이나 기계 조작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經濟的 誘因이 있도록 해야 하며, 土地配當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사. 出役義務의 最少化

兼業이나 其他副業에 종사하는데 支障이 있을 정도로 불규칙한 出役義務를 지워서는 안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一貫機械化를 실현하여 여러 명의 專從員들과 임시 고용자들로 하여금 전농사를 짓도록하며, 出役은 希望者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出役을 못할 때는 金錢代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結 論

전체적인 經濟構造의 再編 속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농업의 小農構造는 장기적으로 볼 때 農業發展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작은 耕作規模를 가지고는 農業所得 伸張에 한계가 있어 자연히 農外所得에 힘쓰게 된다. 農外所得 比重의 증대는 農業의 兼業化를 초래하기 쉽고, 兼業化의 深化는 農業生産의 硬直化 또는 單純化와 아울러 農產物生産費의 増大 및 農業生産性의 下落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한 解決策으로는 效率성이 낮은 農家の 轉業 추진과 함께 單位農家の 經營規模를 확대시켜 自立專業農家를 育成하는 農業構造 改善 事業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農業과 經濟

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制約點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零細農과 兼業農의 協同化를 통해 勞動力 不足과 生産性底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農村의 人力不足이 심화되고 農外就業의 기회가 많아진 근래에 機械의 共同利用을 중심으로 한 協同的 營農의 成功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政府는 최근 自生的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協同的 營農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를 制度的으로 인정하고 育成해야 할 필요가 있다.

引 用 文 獻

1. 農水産部, 「農家經濟 調査結果報告」, 1963~1979.
2. 農協中央會, 「農協調査月報」, 1966~1979.
3. 日本 農林統計協會, 「日本農業 100年」, 家の光協會, 1969. 「日本 農業年鑑」, 1972, 1978에서 作成.
4. 臺灣省 政府 農業普查委員會, 「臺灣省 農業普查報告」, 1967. JCR, *Taiwan Agricultural Statistics*, 1977. 臺灣省政府, 「臺灣農家記帳報告」, 1977에서 作成.
5. 日本 農林統計協會, 「昭和 55年度 農業白書」, 1979, p. 161.
6. 家の光協會, 「日本農業年鑑」, 1978, pp. 321~322.
7. Kanazawa, Natsuki, "Problems and Direction of Agricultural Group Activities in Japan," Doner (ed.), *Co-operative and Commun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7, p. 314.
8. Kubo, Yoshiharu, "The Cooperative Farming System in the Mixed Farming Area of Hokkaido," John Wong (ed.), *Group Farming in Asia*,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9, p. 6.
9. 日本 農林水産省, 「昭和 53年 農業調査報告書」, 1979, p. 146.
10. 倉田貞, "集團的生產組織의 動向: 勝田農事實行組合을 中心으로," 「兼業農業構造」, 石橋俊治, 御園喜博編, 東京大學出版會, 1977, pp. 309~332.
11. Hong, P. F., "Group Extension Technique for Joint Farming in Taiwan,"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Farm Business Management (ASPAC/ORD) Suwon, 1978.
12. Hong, P.F., "An Outline of Group Farming Experience in Taiwan," John Wong (ed.) *Group Farming in Asia*,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9, p. 59.
13. 吳浩成·金正夫, 「經濟發展과 農地制度」, 연구중간보고 7,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8, pp. 49~56.